

이야기 시리즈 6

# 사회개혁 이야기

---

신중섭 지음



## 훔 어 보 기

완전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유토피아를 갈망하지만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없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신의 세계이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다만 문제로 가득 찬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포기하거나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노력을 포기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노예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노예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사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권고하는 포퍼의 사회,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열린사회’와 점진적 사회공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포퍼의 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증가능성’, ‘열린사회’, ‘점진적 사회공학’과 같은 새로운 철학적인 주장을 창안한 포퍼는 190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1994년 영국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긴 학문의 여정에서 과학철학, 인식론, 사회철학, 정치철학, 심리철학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기고, 널리 주목받은 토론에도 많이 참여하였다. 그는 한때 공산주의에 동조하기도 하였지만, 공산주의를 열린사회의 적으로 규정하여 치밀하게 비판하였다. 자신의 조국인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에게 점령되었다는 뉴스에 접하면서 구상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 런던에서 출판된 것은 1945년이었다.

포퍼는 삶이란 곧 문제 해결이라고 말한다. 그는 “과학 또는 철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문제와 만나고,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만일 더 매혹적인 문제와 만나게 되지 않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죽음이 그 문제와 당신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문제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권유한다. 포퍼는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비판과 토론을 통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고 그것을 통해 기존의 이론이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가 열린사회이다.

포퍼는 열린사회의 적은 나치즘이며, 나치즘과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의 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추적하였다. 그는 이들을 모두 ‘열린사회의 적들’로 몰아 세우면서, 열린사회인 서구 자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포퍼는 『역사주의의 빈곤』에서 “‘역사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사회 과학의 목표”이고 역사의 법칙이 우리의 정치를 지도해야 한다는 역사주의를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칼이 아닌 언어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문명의 기초이고, 모든 법제도와 의회제도의 기초”이다. ‘합리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는 동일하다. 철학과 과학에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토론의 방법이며, 이 방법은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 문제의 해결로 제시된 다양한 해답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합리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통해 배우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논쟁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판에 끌어들이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그 비판으로부터 배우려는 것이다. 논쟁의 기술은 싸움의 특수한 형태이다.’ 논쟁은 칼 대신 말을 통한 싸움이고, 논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는 합리주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사회철학에 적용하여, ‘열린사회론’을 전개하였다. 비판과 토론의 방법은 폭력이 아닌 이성을 통해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진적 사회공학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는 사회가 ‘열린사회’이고 비판과 토론에 기초한 사회개혁론이 ‘점진적 사회공학’이다. 비판과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닫힌 사회’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사회변화에 적용하려고 한다. 닫힌 사회의 전형적인 형태가 공산주의 사회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통해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포퍼는 이미 40년대 초에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자는 거짓 예언자이며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폭력에 귀착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통해서도 절대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것이다. 포퍼는 ‘역사주의 historicism’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에 반대하며 점진적 사회공학을 옹호하였다. 그는 역사를 지배하는 필연적인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인 체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은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전체의 개혁을 제시한다. 그들의 관심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발전이며, ‘전체로서의 사회’의 재구성이다. 전체로서의 사회를 문제 삼는 전체론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역사주의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사회 전체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려는 계시적 혁명을 꿈꾸기 때문에 “먼저 모든 것을 짝 쓸어 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그럴 듯한 어떤 것을 실현하려면 저주받은 문명 전부를 없애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포퍼에 의하면 이러한 유토피아주의는 매우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위험스럽고, 유해하며, 자기 모순적이며, 폭력에 귀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여 포퍼는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는 점진적 사회공학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은 사회변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만, 점진적 사회 공학은 변화가 수반하는 피할 수 없는 놀라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한다. 점진적 사회공학은 점차적인 개혁과 열린사회를 지지한다.

포퍼의 점진적 사회공학의 첫 번째 명법은 “추상적인 선의 실현을 위해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법은 “모든 악의 제거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말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만이 폭력 혁명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문제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틀을 깨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싫으면 남아서 고쳐라

우리 속담에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말이 있다.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이다. 절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절은 절의 논리로 움직이며 이 움직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이 싫으면 마음을 바꾸어 절에 마음을 맞추든지, 마음을 못 바꾸면 절을 떠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바꿀 것은 마음이 아니라 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절을 마음에 맞게 바꿀 수도 있다. 절을 바꾸기로 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절을 바꿀 것인가이다. 절과 관련된 사람 모두를 추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울 수도 있고, 관련된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점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혁명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속한 조직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비판적 합리주의자 포퍼는 점진적으로 바꿀 것을 권고한다. 점진적 방법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우선 정치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회를 그는 열린사회라 불렀다.

## 열린사회의 정치적 해석

열린사회를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명되며, 엇갈리는 목적들이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는 다원적인 사회이다. 열린사회는 이성과 비판을 신뢰하는 사회이다. 열린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 여기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열린사회는 의견의 대립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성과 경험의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비판의 빛 아래서 수정되어야 한다. 정치가들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그들은 잘못을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가져야 한다. 열린사회에서는 합리적 비판이 힘을 쓴다. 사람들은 근거 있는 비판이라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포퍼는 이러한 열린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며, 그 토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제도는 자유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포퍼가 제시한 열린사회의 첫 번째 특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문제를 위시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대안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반대파의 존립은 열린사회의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 “칼 아닌 언어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문명의 기초이고, 특히 모든 법제도와 의회제도의 기초”이다. 따라서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날카롭게 모든 정책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포퍼는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철군을 강행한 사건을 열린사회에서만 가능한 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가는 법제도와 사회제도에 의해서 시민들을 야만적인 폭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인 폭력이 난무할 때도 시민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포퍼가 내세우는 열린사회의 두 번째 특징이다. 국가는 경제적인 약자를 경제적인 강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정치권력은 경제적인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사회공학’은 사회 변화와 발전 원리, 기술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여기에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점진적 사회공학’이 있다. 포퍼는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이 지닌 허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진적 사회공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정권들을 범죄자들의 집단이라 단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범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한 광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방법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 버렸다. 반대자들은 단순 범죄자들이 아니라 지상 천국의 건설을 거부한 배교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쿤데라는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들이 꿈꾼 지상 천국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광신자들은 살인자로 밝혀지게 되었음을 이 소설을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쿤데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어요, 나는 믿었을 뿐이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역사적 과오도 동기만 순수하면 면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쿤데라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자기 어머니와 동침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자기가 저질렀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명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모르고 야기시킨 불행을 차마 볼 수 없어 자신의 눈알을 찢러 파내고 장님으로 테베 왕국을 떠났다. 모르고 행한 일에 대해서도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산주의의 실제적 실험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공산주의의 실패를 ‘공산주의의 좌절’로 재해석하여 공산주의를 여전히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다시 오이디푸스의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포퍼는 이미 40년대 초에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자는 거짓 예언자며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폭력에 귀착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통해서는 절대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것이다.

포퍼는 ‘역사주의historicism’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에 반대하며 점진적 사회공학을 주장하였다. 포퍼는 역사를 지배하는 필연적인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인 체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사회적 실천에 앞서, 그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 또는 이상적인 청사진을 유토피아로 정해 놓고 사회 전체를 한 번에 완벽하게 개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이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정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고려한다. ‘궁극적 목적’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행동은 합리적이고 그렇지 못한 행동은 비합리적이다. 곧 정치적 행동은 정해진 최종적인 이상적 상태나 역사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되고 그것을 촉진할 때 합리성을 얻게 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 전체의 개혁’을 제시한다. 그들의 관심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발전이며, ‘전체로서의 사회’의 재구성이다.

독단주의를 불신하고 배격하는 포퍼의 입장은 그의 사회철학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는 잘못된 개념인 확실성(과학적 사회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론은 권위주의와 실현될 수도 없는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청사진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회이론은 개인은 오직 그가 전체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가치를 갖는다는 전체론 holism과 결합한다. 그는 전체론에 반대하여 방법론적 개체론을 지지한다. 방법론적 개체론은 모든 집단적 현상은 개인의 행동, 상호작용, 목적, 희망, 사상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이 창조하고 보존하는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점진적 사회공학은 개인들의 경쟁적인 야심과 비판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사회를 문제 삼는 전체론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역사주의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은 사회 전체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려는 계시적 혁명을 꿈꾸기 때문에 먼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그럴 듯한 어떤 것을 실현하려면 저주받은 문명 전부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퍼는 이러한 유토피아주의는 매우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위험스럽고, 해로우며, 자기 모순적이고, 폭력에 귀착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자기 모순적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 궁극적인 목적을 결단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이 대립하게 되면 그 대립은 필연적으로 폭력으로 귀착된다. 포퍼는 이성의 이름으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상적인 사회 상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서게 되면, 이 대립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으며, 타협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은 교리가 다른 타종교를 이단으로 못 박아 배척하는 종교적 대립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유토피아주의자는 자신의 유토피아적 목적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신의 유토피아적 신앙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다른 유토피아주의자들을 억누르거나 말살시켜 버리려고 한다.

상대방을 억누르고 말살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사회'의 재구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불편을 가져다준다. 이 불편은 불평을 수반하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치자는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탄압할 수밖에 없다. 폭력은 비판적 합리주의가 옹호하는 비판과 반대파의 존립을 말살하게 된다.

따라서 전면적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를 필요로 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는 소수의 지배자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독재정치로 흐르기 쉽다. 권위주의는 이성적인 비판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 폭력은 언제나 보다 강한 폭력을 유발하며, 혁명은 혁명가를 죽이며, 그들의 이성마저 파괴해 버린다. 이성은 선이고 폭력은 악이다.

둘째로, 어떤 정치가가 설정한 이상적인 사회상도 절대적이고 불변적일 수는 없다. 정치적 이상은 가변적이고 특히 지도자가 바뀌면 정치적 이상도 바뀌게 마련이다. 처음 설계한 사람에게는 바람직하게 보였던 청사진이 후계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적인 것에 대한 바람이 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목적이 변경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모든 정책이 무위로 끝나게 되며 경비와 시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궁극적 목적'에 따라 사회 전체를 혁명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주의적이다. 우리는 시행착오와 오류의 제거를 통해 배울 수 있고, 경험에 의해 검토할 수 있는 것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여 포퍼는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는 점진적 사회공학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만, 점진적 사회공학은 변화가 수반하는 피할 수 없는 놀라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한다. 점진적 사회공학은 점차적인 개혁과 열린사회를 지지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다.

## 점진적 사회공학

포퍼는 '전체로서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소규모의 조정과 재조정에 의해서만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점진적 사회공학은 과학적 지식의 점진적 성장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과학의 성장이 대담하게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이 안고 있는 난점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듯이,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명화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나아가 점진적 사회공학은 개인들의 경쟁적인 야심이나 비판과 잘 맞는다. 이러한 점진적인 사회공학은 그의 인식론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며, 방법론으로 건전하다.

포퍼는 점진적 사회공학의 명법命法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명법은 다음과 같다.

“추상적인 선의 실현을 위해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 명법을 제시한 이유는 이상적인 선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쉽고 명백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각각 다르고 이상적인 선에 대한 합의나 타협은 힘들다. 최상의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게 되고,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게 되며, 나아가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 포퍼는 정치적인 이상의 실현에 의해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고통이 합리적인 공공 정책의 가장 긴급한 문제이며, 행복은 긴급한 문제가 아니다. 행복의 성취는 개인적인 노력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을 촉진시키는 것보다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건전하다.

점진적 사회공학의 두 번째 명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악의 제거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선한 사회라고 하는 원대한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악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금의 가난, 실업, 질병, 문맹 등과 같은 악을 먼 장래의 유토피아 건설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외시하게 되고, 환상적인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퍼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점진적 사회공학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합리주의와 일치한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점진적 사회공학자는 기대했던 성과와 실제로 이룩한 성과를 신중히 비교하면서, 개혁에 수반하는 원하지 않았던 불가피한 귀결을 경계하면서 한걸음씩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정책은 결함을 가질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승인하고, …… 자신이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잘못을 무시하고, 잘못을 숨기고, 잘못을 타인에게 떠맡기는 대신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아들이고, 잘못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명심하는 태도를 취한다.

점진적 사회공학은 폭력 대신에 이성적 태도를 존중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지 말고 자신도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관용과 지적인 겸손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 진보의 척도

이러한 점진적 사회공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인류 역사의 진보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닌 시대의 역사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소위 비판적인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지식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전부 위장된 자유에 불과하다고 자유를 폄하한다. 그들은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 대부분이 철저한 신분제에 묶여 소수의 사람들에게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리며 기본 체력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보통 사람들에게 가난은 윤리적 품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전면적 사회혁명만이 참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항상 지옥만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모른 척한다.

포퍼는 역사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포퍼의 낙관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다. 그는 우리가 사회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이성의 비판적 능력의 도움으로 악을 조금씩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미래가 어떠한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포퍼는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며,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를 향해 진보하고,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하고, 이 법칙을 발견하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이나 결단은 역사적 필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믿음을 통틀어 역사주의라 불렀다.

역사주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 빠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들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 역사의 필연을 위해 희생했다고 스스로 믿고 말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포퍼는 『역사주의의 빈곤』을 “역사적 운명이라는 준엄한 법칙을 믿은 파시스트와 코뮤니스트에 희생된 온갖 신조, 국적, 민족에 속한 무수한 남녀들을 기억하며”라는 헌사로 시작한다.

역사주의는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적 기초다. 열린사회의 적이다. 그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인 체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교주다. 이 말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에 빠져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면서 남에게 고통과 의미 없는 죽음을 강요한다.

이들은 추상적인 것, 예를 들면 국가, 민족, 프롤레타리아를 숭배하게 한다. 이데올로기가 인간이 사고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면 그 이데올로기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단순한 구호를 공식처럼 암기하도록 하면 사람들은 마치 우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듯한 착각에 빠진다.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역사는 필연적이며, 우리는 역사 필연에 지배를 받는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그들은 역사는 우리 편이고 적은 필멸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정치를 부패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광신자로 만든다.

## 사이비 과학으로서의 역사주의

과학의 위력과 설득력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과학이라고 우긴다.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과학을 판다. 포퍼가 보기에 과학과 촌수를 따지기 힘든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이 과학 행세를 톡톡히 하고 있었다. 포퍼가 해결하려고 고심한 철학적 문제가 바로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을 구별하는 문제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정신분석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보기에 참다운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그 반대의 태도를 취했다.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말하였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이론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크게 감동한 포퍼는 ‘반증가능성’을 과학과 비과학을 구획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는 이론만이 과학의 영역 안에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증될 수 있는 이론만이 과학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미신이나 형이상학에 속한다.

반증가능성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마르크스주의나 정신분석학은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다. 이 두 이론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설사 반증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되었을지라도, 반증 사례가 나타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로 둘러댄다. 이들은 1992년 몇 월 며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대담한 예언을 했는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정이 생겨 휴거를 연기했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와 다를 바 없다.

점쟁이 말은 반박 당하지 않는다. 올해는 운수가 대통령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점쟁이에게, 불행한 일을 당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항의하면 “운수 대통령해서 죽지 않고 살아 남았다”고 말하는 점쟁이의 점괘는 절대로 반증 사례를 만나지 않는다. 나

아가 정신분석학자들은 비판은 억압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무시해 버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 이론에 대한 모든 비판을 계급적 편견의 소산으로 폄하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반증에서 완전히 면역되어 있다.

## 비판적 합리주의 국가관

포퍼는 경제에 대한 완전 자유방임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곧 경제적 자유에도 최소한의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시민들을 경제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생존권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강자에 대항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이 경제활동에도 요청된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자비에 호소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곧, 유를 공고히 지키려 한다면,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책 대신에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적 간섭을 채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독점과 트러스트, 유니온 등과 같은 준정치적 조직들이 개입되어 시장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가 되기 때문이다. 포퍼는 통제 없는 자본주의 대신에 부분적인 최소한의 국가의 경제 간섭주의를 채택한다.

그러나 국가는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악이다’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주의가 되고, 권력을 너무 축소하면 자유방임으로 빠지기 때문에, 국가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권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포퍼의 입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집단주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력을 방범대원의 의무에 제한해서는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고전적인 집단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는 평등한 자유를 보장할 목적으로 오직 교육과 경제만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유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때만으로 국가 간섭이 제한되어야 한다.

## 누가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묻지 마라

포퍼는 통치자의 자격이나 국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정치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식론과 같이 전통적인 정치철학은 권위주의적이

다. 전통적인 인식론이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지식의 근원을 문제삼듯이 전통적인 정치철학은 누가 통치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를 문제삼는다. 누가 통치자로 가장 적합한가 하는 물음은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며, 누구에게 절대적인 통치력이 주어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과 동일하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정치철학은 현명한 철학자나 프롤레타리아가 다스려야 한다고 말할 것이며, 통치력은 신이나 국가 또는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포퍼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 자체가 잘못이다. 아무리 현명한 통치자라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모든 권위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포퍼의 열린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지배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많은 해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치철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의 전환은 권위주의적 인식론을 거부하고 반권위주의적인 인식론을 받아들였듯이, 권위주의적인 정치철학을 거부하고 반권위주의적인 정치철학을 받아들여야 하는 포퍼의 기본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포퍼는 정치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가가 선해야 한다는 의식을 찾고 있다. 플라톤의 철인왕이나 유교의 덕치는 모두 이러한 전망에서 나온 발상이다. 물론 정치가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좋은 지도자가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통해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믿고 선출해도 그 사람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퍼는 선한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능한 지도자가 나타나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적인 보안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와 제도는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도에 관심을 쏟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테레사 수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희생과 봉사, 헌신으로 일생을 살다간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그에게 어떤 찬사의 말을 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물질, 명예와 부귀와는 상관없이 오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나 농촌 사람도 건강을 위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어떻

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물론 투철한 인류애를 가진 의사들이 많이 나와 병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다.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슈바이처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모금을 하여 병원을 세우고 몸 바쳐 희생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악을 사랑을 가진 의료인의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자비심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정치가의 덕망이나 지혜에 의존하여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가와 행정가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 뒤에는 행위자가 각각 윤리적 자각이나 결심에 의해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해결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결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의 뿌리 깊은 덕치주의에 대한 동경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은 원대한 선의 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악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야 한다는 포퍼의 입장은 국가의 목적을 행복의 증진, 인간적이고, 완전하고, 도덕적이고,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이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존립 등으로 규정한 전통적인 정치 철학자들의 입장과 완전히 구별된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나 개인들의 생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가져올 뿐이다.

포퍼는 모든 정치 이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 이념은 인간을 완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소망이다. 땅 위에 천국을 만들려고 한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상적인 정치이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구체적인 악의 제거를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비판적 합리주의 국가관의 중심이다.

## 비판적 합리주의 민주주의론

포퍼는 지금까지 논의한 열린 사회가 하나의 정치적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폭력을 통하지 않고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정권을 쥔 사람들이 다른 정책을 가진 사람에 의해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포퍼는 이것이 가능한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본다. 포퍼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구분된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한다면 폭력 없이도 붕괴될 수 있는 정부가 민주주의이고 그렇지 못한 정부가 전제주의이다.”

포퍼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차이점을 폭력 없이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두고 있다. 포퍼가 옹호하는 열린사회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바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열린사회와 자유 민주주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제도화한 것이다. 인간의 가장 신성한 활동인 비판은 자유 민주주의 아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열린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동일하며, 그 양자의 핵심은 자유로운 제도, 자유 언론, 자유선거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포퍼 식의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민주주의의 역설’이 갖는 난점을 피할 수 있다. 다수에 의한 통치를 민주주의적인 통치라고 한다면, 다수가 민주주의의 체제를 거부하고 그것을 파괴하기로 결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비민주적인 정권이 집권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싸울 도덕적인 근거를 다수에 의한 통치가 민주주의라는 주장에서 찾을 수 없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열린사회에 접근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서구 자유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다수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전통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적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그의 말 속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잘 나타나 있다.

포퍼는 오직 민주주의만이 폭력 없는 개혁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이성을 사용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포퍼의 이 같은 생각 뒤에는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한 역사적인 체험과 현재 서구의 사회 상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숨어 있다. 그의 자서전에 언급되었듯이 강의 차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영국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이때 영국 사회는 그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 체험에 의해 그의 사회철학의 중심개념인 열린 사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영국 시민들의 정직, 관용, 정치적 책임감이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준 것이다. 포퍼는 이때의 느낌을 영국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나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창문을 활짝 연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의 열린사회라는 이름은 이러한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 대한 체험에서 열린사회라는 개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회 철학은 현대 서구의 정치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 있다. 1930년대 후반의 독일적인 정치체제, 곧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념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서구적인 민주주의와 서구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했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 쓰인 목적이 결과가 불확실한 전쟁의 와중에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서구 문명을 구하려는 것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포퍼의 이러한 입장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사회철학은 철저하게 서구 중심의 정치체제 옹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들의 자유세계는 역사상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라고 할 때, 여기에서 포퍼가 말하는 ‘우리’는 대서양 공동체로 구성된 자유세계를 의미한다. 특히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위스 그리고 태평양에 자리 잡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의미한다.

포퍼는 서양 세계가 주는 환멸감이나 역사적 비관론을 피해라. 20세기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결코 유행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지성적 테러리즘이나 돈이나 권력에 빠져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서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마하라고 권고한다.

## 가장 행복한 철학자

포퍼는 스스로 “나는 내가 만나 본 철학자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1차, 2차 세계 대전과 태어나 자란 조국이 나치의 지배를 받게 된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철학자였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확실히 구별된다. 그는 비판을 통해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를 저주 받은 시대, 불운한 시대, 종말이 멀지 않은 시대라고 비관해 온 많은 철학자들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를 만나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그는 낙관론자다. 그는 얼마 전에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던 문제도 대부분 과학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고 믿는다. 과거 역사를 아무리 뒤져 보아도 오늘날처럼 살기 쉬웠던 사회는 없었다고 그는 장담한다. 그가 몸담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빈곤은 현실적으로 사라지고, 과도한 사회적 불균형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린다. 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저하되었고, 노예제도는 사라지고, 잔혹 행위도 없어졌다. 이러한 모든 일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수백만 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밝은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그가 낙관하는 근거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개혁과 경제발전이 힘입어 더 좋은 사회에 살게 되었지 폭력혁명을 통해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포퍼가 말하는 우리 '서구사회'는 가난, 질병, 고통, 형벌의 가혹함, 인종차별, 교육적 기회의 결여, 전쟁 등의 죄악을 없애버리는 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왔으며, 계급의 차이도 놀랍게 감소되어 사실상 계급 없는 사회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사회에서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시도는 절대 이성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아무런 전통도 없는 백지 상태에 합리적으로 조직된 국가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는다.

포퍼가 중시하는 토론과 타협은 전통적인 도덕적 틀 속에 내재해 있는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 기반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하루아침에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상황은 전통의 파괴를 가져오고, "전통의 파괴는 냉소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며, 모든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짓밟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통에 대한 포퍼의 강조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혁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동일하며, 이미 서구사회는 열린사회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행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의 강조와 동일하다.

## 폭력 사용의 정당화

포퍼는 이성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옹호는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항상 이성적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총칼을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과 폭력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을 택한 것이다. 폭력을 증오하여 이성(합리주의)을 택한 것이다. 그는 이성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이성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피할 수 있는 폭력의 사용을 피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성적인 태도를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폭력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포퍼가 폭력을 허용하는 상황은 '관용의 역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선 관용의 역설부터 살펴보자. 포퍼는 관용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의하고 있다. 관용의 역설이란 무제한적인 관용은 관용 자체를 없애버리는 역설이다. 만일 우리가 너그럽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푼다면, 만일 우리가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너그러운 사회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그러운 사회는 파괴되고 관용 자체도 사라져 버리고 마는 역설이다. 그는 이러한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사회는 관용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너그럽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이성과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지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도 된다.

민주적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악이며, 전복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적인 정부는 이 민주적인 정부를 비민주적인 정부로 대치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관용의 적과 싸워야만 한다. 그는 너그러운 사회에서 관용을 베풀려고 하지 않고 비관용이나 타인을 괴롭힐 것을 선동하는 행위는 범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살인이나 납치 또는 노예를 인신매매하는 제도를 선동하는 것과 같이 범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전제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경우에도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떤 경우이나 상황을 무시하면서 폭력 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폭군의 치하에서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폭군 살해를 인정하며, 폭력혁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 사상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혁명은 민주주의 수립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 폭력의 사용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이때의 폭력도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폭력 없이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경우이다.”

포퍼에 따르면 열린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폭력의 사용은 이성적으로 정당화된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단 민주주의가 성취된 후에 민주 헌법과 민주적 방법의 사용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항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파괴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든, 그 사람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든, 시민들은 그 사람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자신을 폭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는 범죄자 집단이므로, 시민들은 그러한 정부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권

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기도에 대항하는 폭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당방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포퍼는 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포퍼는 현재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존재해 온 사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회라는 전제 위에서 폭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폭력이 아닌 이성을 통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는 폭력은 ‘혁명적 폭력’이 아니라 ‘파괴적 폭력’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폭력은 ‘방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정당한 폭력이라고 포퍼는 생각하였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제도적 폭력’이 아니라 ‘방어적 폭력’이라는 전제 위에서 있다.

## 혁명의 유혹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마르쿠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화와 자유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사회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억압이 사회 전반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모든 사람에게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은 ‘혁명적 폭력’으로 정당하다. 이 때 사용하는 폭력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선적인 도덕과 가치 그리고 테러에 대항하는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통해서만 체제 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해야만 모든 것을 상품의 상태로 타락시켜, 매매관계로 전환시켜 버린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착취, 억압, 빈곤, 낭비가 없는 사회로의 해방을 방해하는 집단은 현존 체제와 이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갈수록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기득권의 세력이다. 착취와 억압은 전쟁이나 경제적 힘의 집중과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에 속한다. 모든 악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버리지 않고 이 악을 제거할 수 없다.

마르크제에 있어 국가는 국민이 보호자가 아니라 억압자이다. 그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국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포퍼와 완전히 반대된다. 포퍼는 모든 제도가 지배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것 우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정치제도를 통해 국가가 국민들을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마르크제에 있어 국가는 국민의 억압자이다.

마르크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존하는 사회에서의 폭력은 놀라울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는 분명히 파괴적이고 공격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저항적 폭력이며 혁명적 폭력이다. 국가의 권력, 곧 제도의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대결은 필연적이고, 이 폭력의 정당성은 실정법의 차원에서 찾아질 수 없다. 마르크제는 “기성 계급의 폭력에 대항하는 권리와 저항,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고 행사하는 일이야말로 자유와 역사 발전에 있어서 원동력, 즉 잠재적인 해방의 폭력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 사회를 종식시키기 위한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포퍼는 진부한 보수주의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폭력만을 ‘혁명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항하는 국가의 폭력을 방어적 폭력이라고 본 포퍼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마르크제와 포퍼의 차이점은 곧 현재의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적인 정치이념이 지켜나가야 할 정치이념이라는 합의를 버리지 않는 한 포퍼의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도달한 사회가 아무리 완전해 가깝다고 하더라도 혁명을 향한 정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폭적인 폭력혁명 없이 현재 사회가 구제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을 개선해 가는 것이 급진적인 유토피아 사상에 대한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폭력이 아닌 이성을 통한 개선의 사회 공학을 제시한 것이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갖는 의미이다.

## 보수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수해야

포퍼의 사회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집단의 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그의 사상이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영국에서 신중하고 보수주의적인 견지를 가장 명료하고 비타협적인 형태로 표명한 사람이 포퍼였다.

포퍼에 있어 열린 사회는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상적 자유주의의 부르조아적 국가관을 옹호하는 포퍼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곧 그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철저한 옹호자라는 것이다. 그의 사회공학은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즉 자본주의 사회를 영속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관점이다. 카는 포퍼의 점진적 사회공학을 ‘미봉책’이며, ‘얼렁뚱땅한다’고 비난하였다.

카는 “포퍼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성의 지위는 영국 정부 관리의 지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들은 행정부의 정책을 시행할 권리도 있고, 이러한 정책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실제 개량책을 건의할 자격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전제나 궁극적 목적을 의심할 자격은 없다”고 혹평하였다. 카는 포퍼가 이성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성을 기존 질서의 전제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곧 혁명=자유주의=이념의 통치를 내세운 액튼 경의 이성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퍼는 자유민주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퍼는 이성을 굳건히 신뢰한 계몽주의의 마지막 철학자인지도 모른다. 그는 볼테르와 칸트의 철학에 찬성한다. 그들은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수학을 막론하고 모두 이성의 정확한 실험 아래에 두었다. 포퍼가 이성을 부정하는 모든 형태의 상대주의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성을 사용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기존 공산주의 국가의 쇠퇴에 의해 더욱 강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 시대의 어둠을 체험하면서, 또 이 시대의 절망을 목도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낙관주의를 견지한 포퍼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희망 속에서 전면적으로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점점 나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매기, 『칼 포퍼』, 이명현 역, 문학과 지성사, 1982.
- 신일철 편, 『포퍼』,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 신중섭, 『포퍼와 현대의 과학 철학』, 서광사, 1992.
- 이한구, 『역사주의와 역사철학』, 문학과 지성사, 1986.
- 포퍼, 『과학적 발견의 논리』, 박우석 역, 고려원, 1994.
- 포퍼, 『역사주의의 빈곤』, 이석운 역, 지학사, 1975.
-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1권.2권』, 이명현.이한구 역, 민음사, 1982.
- 홍윤기 편역, 『혁명이나 개혁이나』, 사계절, 1982.
- Ackermann, R. J., *The Philosophy of Karl Poppe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6.
- Burke T. E., *The Philosophy of Popp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 Popper K. 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63.
- Popper K.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1.2*, Routledge, London, 1945.
- Popper K. R., *Unended Quest*, Fontana Paperbacks Glasgow, 1976,
- Popper K. R., *In Search of a Better World: Lectures and Essays from Thirty Years*, Routledge, London, 1992.

## 사회개혁 이야기

---

1997년 12월 26일 1판 1쇄 발행

2019년 10월 1일 1판 2쇄 발행

저자\_신중섭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